

III. 주요 경제 현안

1. 韓·中 정상 회담의 결과 및 의미

- (공동 성명의 내용) 양국 관계가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산업 교류의 전 부문으로의 확대, 중국 건설 부문에의 참여 및 對중국 차관 제공 등이 합의되었음
- (의미) 양국 관계가 경제·통상 분야 위주에서 정치·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와, 호혜의 원칙하에 실질적인 경험 확대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음.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중국의 역할 부각 및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 획득을 통해 대북 관계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동 성명의 내용

- (정치) 양국 관계가 과거 「선린 우호 관계」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중국은 대외 관계를 단순 수교 관계 ▶ 선린 우호 관계 ▶ 동반자 관계 ▶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 혈맹 관계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북중 관계는 과거 「혈맹 관계」에서 한중 수교, 김일성 사망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향후 양국 정상은 물론 정부, 의회, 정당 인사의 교류 확대에 합의
- (외교)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 우리나라는 UN, APEC, ASEM 등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및 방콕 협정(역내 개도국간 관세 인하 협정) 가입을 지지함
 -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체제의 수립을 양측이 합의하고 중국이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함
- (경제) 산업 교류의 확대 및 건설 분야의 협력 강화
 - 자동차 부품 등에 국한된 산업 교류를 첨단 기술과 에너지 등 3차산업으로 확대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관 70억 원 제공, 제3국 건설 사업에의 공동 진출과 양쯔강 교량 건설 등 중국의 6개 대형 건설 공사에 대한 공동 협력에 합의
 - 우리 기업의 현지 금융, 우리 보험회사의 중국내 영업 허용, 한국계 은행의 元貨 영업 허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냄

□ 정상 회담의 의미

- 양국 관계 확대를 위한 전기 마련

- 92년 수교 이후 지난 6년간 경제·통상 부문에 치중되었던 양국 관계가 정치·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전기 마련
- 정치·행정 관련 인사의 교류 확대는 향후 양국간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측에 의해 제의된 국방 장관급 회담은 그 성사 여부를 떠나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

- 양국 관계의 격상은 그 동안 경제 협력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경제 외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경제 협력 확대의 기틀이 될 것임
- 元貨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 불안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특히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금융 위기 확산 과정에서 공동 대처하겠다는 동반자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내 사회간접자본 시설(2000년까지 7,500억 달러가 소요될 SOC 투자 계획 및 200억 달러 규모의 홍수 피해 복구 등)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중국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것임

- 21세기를 대비한 한반도 주변 외교 질서의 구축

- 중국의 4자회담 및 남한의 대북 포용 정책 지지로 지금까지 미묘하던 南·北·中 관계의 큰 틀이 정리되었으며, 향후 우리의 대외 관계가 美·日 양측에서 美·中·日 3각 정립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체제 구축 및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중국의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

(김 정 균 jkkim@hri.co.kr ☎724-4049, 황 동 언 hde@hri.co.kr ☎724-4055)